

— EIAK 소식 —

전자산업 해외투자전략 포럼 개최

본회는 지난 4월 29일 반도아카데미에서 우리나라 전자관련업체의 국제화와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자산업 해외투자 전략」이란 주제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본회 이상원 상근부회장, 전자업계 100여명이 참석 개최되었는데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포럼은 1부에 노상국 전자신문사 주필의 사회로 전용옥 중앙대 교수가 「글로벌 시대의 한국전자산업의 국제화 방향」이란 제목의 주제를 발표했으며 2부에서는 지용희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태일정밀의 중국투자 사례발표 등 지역별 해외투자사례발표와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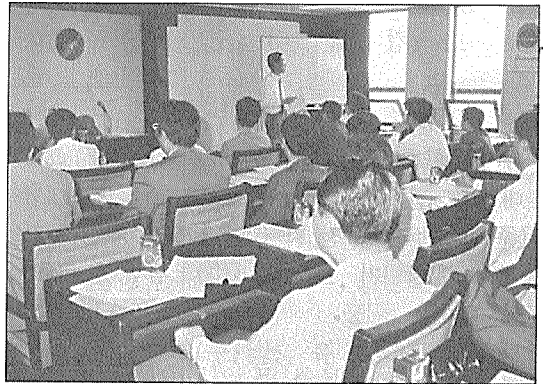


첨단산업의 범위 및 공업발전기금 지원요령 설명회 개최

본회는 지난 4월 21일 본회 회의실에서 한

국 릴레이 이사 등 101명이 참석, 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설명회는 상공자원부 최갑홍 서기관이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해 개정 고시된 첨단산업 범위 및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본회 김규완 과장이 공업발전기금 지원 요령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94년도 전자·전기공업통계 담당자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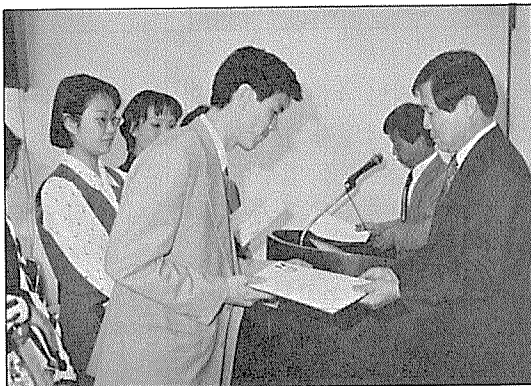
본회는 지난 4월 22일 본회 회의실에서 전자업계 통계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우중 업무이사는 본회가 정부지정 통계 기관으로서 통계담당자들이 매월 적극적인 협조로 전자·전기공업통계를 조사할 수 있게 되는데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9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조사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본회는 이 날부터 4월 26일 구미지역,

27일 대구지역, 28일 마산지역, 29일 부산지역 등 각 지역별로 순회하며 동간담회를 개최하고 통계조사의 목적과 중요성, 통계조사표 작성요령 등을 설명하고, 통계자료 제출 우수업체 담당자 표창이 있었다.

다음은 포상자 명단이다.

업 체 명	성 명
(주) 금 성 사	장 영 현
삼 성 전 자	(주) 강 종 문
광 덕 물 산	(주) 박 성 순
(주) 로 켓 트 전 기	장 해 순
한 룡 전 자	(주) 김 기 곤
금 성 정보 통신	(주) 전 상 기
(주) 한 창	임 진 수
중 앙 전 자 공 업	(주) 정 해 영
삼 보 컴 퓨 터	(주) 이 철 규
대 덕 산 업	(주) 임 재 열
한 국 코 아	(주) 석 중 하
삼 화 전 기	(주) 신 용 규
대 우 전 자 부 품	(주) 공 광 우
(주) 한국광전자(연)	고 병 기
한 국 전 기 초 자	(주) 김 강 덕
삼 성 공 업	(주) 서 정 원
한 국 동 앙 유 전	(주) 변 영 구
(주) 티 엠 씨	정 수 용
부 산 전 기 통 신 사	서 정 수
(주) 오 토 닉 스	김 봉 태



본회 WTDS 체제 도입 부품등록센터 설치키로

본회는 전자부품에 세계공통의 형명을 부여하는 WTDS(세계공통형명부여체제)에 가입하고 전자부품등록센터를 금년 내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WTDS(World-wide Type Designation System)란 브라운관 등과 같이 자본집약적인 전자부품산업에 있어 세계공통의 형명을 부여하는 체제로 이를 통해 국가간·기업간 또는 생산자와 구매자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2년부터 국제적으로 시행해온 제도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등록기관이 없어 EIAJ산하 등록기관(EDEREC)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에 이 등록센터를 설치하게 된 의미는 현재 세계적으로 브라운관에 있어 국내 생산 규모가 제1위에 있고 이 품목의 독자적인 설계, 개발 등의 기술력면에서도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브라운관 생산업체들은 외국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세계적인 브라운관 생산업체 및 구매자간에 기술시장 등의 최근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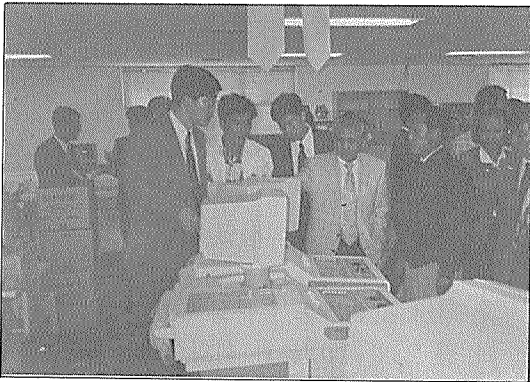
전자의료기기 제조공장 견학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회장 : (주)두산상사 대표이사 김준경)에서는 지난 4월 12일, 15일, 19일 3일간 국산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산 전자의료기기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주)동아 X-선기계 등 5개사의 제조공장을 견학하였다.

동견학은 12일 동아X-선기계 공장(충남 금

산)을 시작으로 보사부 관계자 및 의료기관의 구매담당자, 전문의사 등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투시 촬영기 등 최근에 개발한 리모트 콘트롤시스템 등의 제조과정을 견학하고 오후엔 두산상사(경기 교인)의 X-Ray 필름 자동현상기의 제조과정을 지켜 보았으며 4월 15일에는 (주)메디슨(강원도 홍천)을 방문하여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제조과정과 사업계획 등을 보고 받았으며, 4월 19일엔 (주)중외메니칼(경기 용인)에는 수술용 무영등과 인큐베이터등을, (주)로얄메디칼(경기 파주)에서는 마취기를 생산하는 과정을 견학하였으며 각 일정마다 제품 및 제조업체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져 제조업체에 대한 노고와 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당부하였으며 제조업체와 의료기관과의 상호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동행사는 병원관계자와 국내 제조업체간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큰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국내 전자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전자업계, 폐가전품 위탁처리사업 전격으로 확대

본회(회장 : 구자학) 환경대책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서울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폐가전품 위탁처리사업을 금년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였다.

본회는 작년 5월 부터 (주)금성사, 대우전자(주), 삼성전자(주), 아남전자(주) 등 가전업체와 함께 범국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운동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제조업체 차원에서 폐가전품 회수·처리 사업을 재활용 전문업체와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지역에서 폐가전품의 회수·처리 및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가전업체는 작년 하반기에 (주)대림자원과 동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폐세탁기 2만대, 폐냉장고 3만대, 폐 TV 80대 등 모두 740톤에 달하는 폐가전품을 수거해 그 가운데 고철, 알루미늄, 모터 등 3,285만원 상당의 폐부품을 재활용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가전업체는 (주)대림자원과 함께 약 3,000만원 상당의 폐기물 예치금의 환불을 관계기관에 신청토록 할 계획이다. 그런데, 가전업체가 이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인 '92년에는 903대의 폐세탁기를 회수해 약 100만원의 예치금을 환불 받은 바 있다.

본회와 가전업체는 '93년의 동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금년에는 이를 서울 이외에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등 전국으로 확대키로 하고 지역별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폐가전품 수거 및 재활용 전문업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93년의 동사업에서 나타난 문제는 전문업체들이 영세한 관계로 폐쇄처리 시설 및 집하장 확보 미비, 수거물량 부족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수거 운반에 따른 물류비용 과중 등의 문제점이 많아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영세한 수거운반 및 재활용 전문업체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와 가전업체는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그리고 폐가전품 재활용 업체가 서로 역할을 분담해 효율적으로 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본회와 가전업계는 금년에 이 사업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폐가전품 배출량의 감량화와 재자원화를 위해 리사이클 연구센터를 통해 업체별로 제품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부터 이를 고려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와 그 결과를 매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폐가전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재활용을 위해 재질을 표기하고 친환경제품의 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폐가전품 재활용을 위해 TV 등의 합성수지에 재질명을 표시키로

본회(회장 : 구자학) 리사이클연구센터는, 폐가전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2차에 걸친 협의 끝에 TV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에 재질명을 표시키로 하였다.

가전업계가 우선적으로 합성수지에 재질명을 표시키로 한 것은, 폐가전품 가운데 합성수지를 사용한 부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재활용이 가장 용이한 분야중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표시대상 품목은 우선적으로 TV, 냉장고, 세탁기로 하고 이를 점차 확대키로 하였으며 표시 대상 부품은 TV의 Panel Assy 등, 냉장고는 다용도 바구니 등, 세탁기는 본체 등 중량 100g이 넘는 모든 부품에 적용키로 했다.

재질별 표기 약호(문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합성수지 재질표시 약호 규정(ISO1043)에 따르고 하였고, 표시 도안은 아직 ISO에서 결정한 도안이 없고 바이어 요구가 각기 달라 향후 ISO에서 국제환경경영표준화(가칭 ISO18000)규정이 이루어 질때까지

각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키로 하였으며, 표기 시행은 금년 4월부터 새로 설계 생산되는 모든 신모델에 대해 적용키로 하였다.

본회 리사이클연구센터는 합성수지업계 및 재활용업계에 재질 표시 요령을 통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업계 방문을 통해 표시 이행 상태를 점검한 후 금년 말 재활용평가지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키로 하였다.

전자부품산업협의회

C CL 생산업체들은 지난 4월 8일(금) 본회 11층 회의실에서 두산전자 등 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각사 CCL생산현황 수출입 현황 등에 대한 동종업계간 정보교류를 하였다.

칼 라TV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목) 본회 11층 회의실에서 (주)금성사 등 수급업체 7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TV용 Line Filter 표준화 협의를 하였다.

P CB(인쇄회로기판)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화) 본회 11층 회의실에서 대덕전자(주) 등 8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동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조사, 추진에 대해 협의하였다.

모 니터 소요부품 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금) 본회 회의실에서 (주)금성사 등 수급업체 8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Tact Switch 표준화 규격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바로잡습니다.

본지 '94. 4월호 24쪽 하단에서 8행의 규격종류 ISO 9002를 ISO 9001로, 40쪽 상공자원부 인사에서 산업기술국장 송덕영을 주덕영으로, 부품반도과장을 부품반도체 과장으로 바로잡습니다.